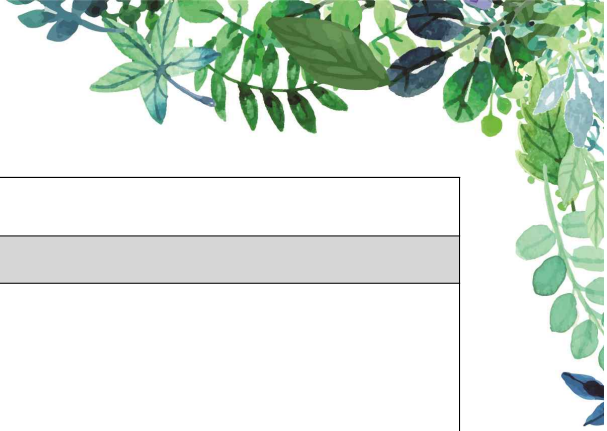


ABS BRIEF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기간	2017년 7월 1일 ~ 31일
----	-------------------

요 약

●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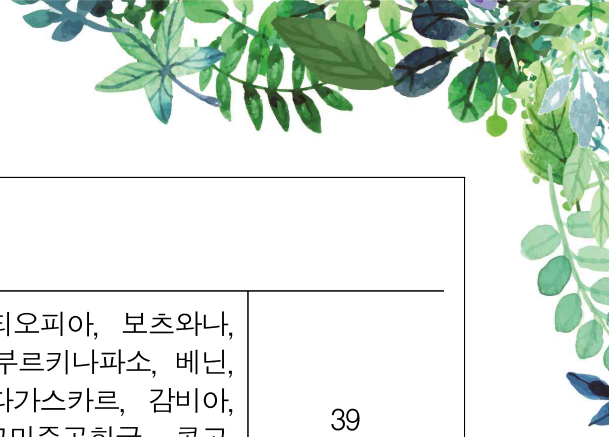
【신문기사 및 기타】

- 내달부터 제약·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사정권 ('17.7.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정책 토론회 실시 ('17.7.11)
- 바이러스·의진균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 2곳 운영 ('17.7.17)
- 나고야의정서 D-29...소비자 가격 부담 가중 ('17.7.1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지정 운영 ('17.7.19)
- 내달 '나고야의정서' 발효 앞두고 업계 촉각 ('17.7.20)
- 정부 해법 더딘 '나고야의정서'...화장품·제약업계 '불안 불안'('17.7.21)
- '나고야의정서' 내달 발효...국립종자원, 업계 대상 설명회 ('17.7.23)
- 녹십자 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지속 성장하는데... ('17.7.24)
- 경기도 바이오산업 애로해결...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17.7.24)
- 생물자원에 로열티 지불...'나고야의정서' 대책 시급 ('17.7.24)
- 무협 "중국發 생물유전자원 보호 쇼크, 업체들 대응 서둘러야" ('17.7.27)

● 국외동향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0개국(99개국+EU)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21
오세아니아		피지,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유럽	서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12
	기타	알바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룩셈부르크, EU	11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안티가바부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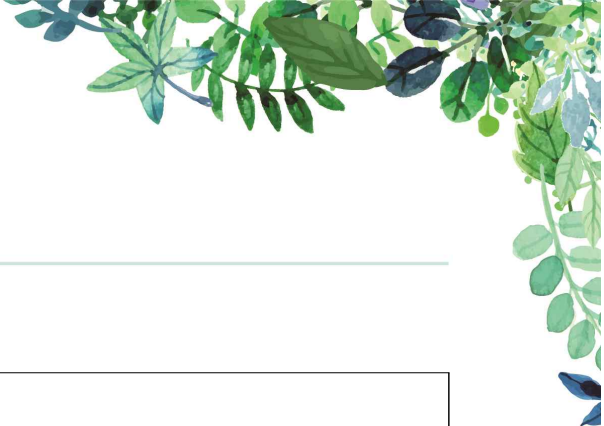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셸,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39
-------------	---	----

- 한국('17.8.17), 일본('17.8.20), 쿠웨이트('17.8.30)는 당사국(Parties, 현재 97개) 예정

【 신문기사 및 기타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당사국이 됨으로 국제발효 임박 ('17.7.4)



국내 동향

주요 동향 정보

【신문기사 및 기타】

□ 내달부터 제약·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사정권

- 6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인도와 일본, 중국, EU 및 독일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준비국들의 현황을 소개.
- 바이오 생물자원 보호국의 레이 카이 박사는 '중국의 바이오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ABS) 및 대응' 강의를 통해 중국의 강도 높은 생물자원 보호 정책 동향을 공개.
- 중국정부는 2010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바이오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의 이익공유와 관련한 법은 씨앗, 축산, 한의학 세 분야이며, 씨앗과 축산은 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공유하고, 한의학은 전통 지식을 가진 자가 전통 지식의 활용에 따른 이익과 PIC 제출에 대한 권리를 가짐
-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하위 법령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8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며,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유전자원 정보를 접근자들에 제공하는 가칭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할 것이다"며 "업체간 PIC과 관련해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함.

※ 메디컬타임즈 ('17.7.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가 8월 3일까지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참여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
- 이번 토론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고유 산림생명자원의 확보 및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이용활성화, 산업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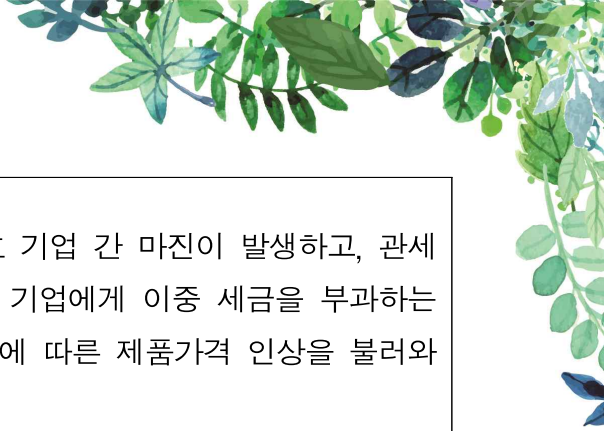
-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 또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해당 토론주제를 선택해 의견을 등록.
-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92%가 서식하는 산림에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생명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 ※ 정책브리핑 (‘17.7.11)

□ 바이러스·의진균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 2곳 운영

- 바이러스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은 고려대학교(은행장 송기준)가, 의진균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은행장 김자영)가 각각 지정돼 운영.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맡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분석·평가·보존·분양 등 기존의 업무 외에 현황조사와 국외반출 관리, 외국인의 병원체 자원 취득 관리 업무를 수행.
- 오는 2021년까지 총 4911억 원을 지원해 수출과 수입 대체 전략품종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종자산업 육성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며, 이 외에도 농진청,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에 강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품종 개발 연구에도 매진.
- 다른 나라의 병원체 자원을 활용해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면, 그 소유권을 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공유하도록 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되고, 생물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추세.
- 질병관리본부는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업무 확대는 국내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체 개발의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 연합뉴스 (‘17.7.17)

□ 나고야의정서 D-29…소비자 가격 부담 가중

- 나고야의정서가 내달 17일 본격 발효되면 제품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타격을 받을 품목군은 이른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전체로 봐도 무방하며, 예를 들어, 애엽·센텔라아시아티카정량추출물·연어 등을 주성분으로 한 전문 또는 일반 의약품·건기식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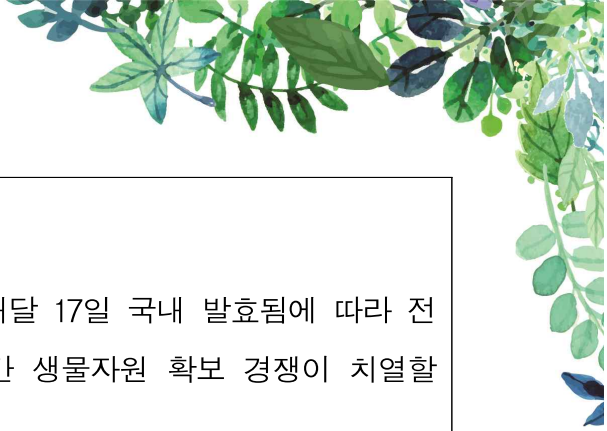
- A제약사 개발부장은 "원료 수출입 과정에서 이미 상호 기업 간 마진이 발생하고, 관세 등의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기업에게 이중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수입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원가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을 불러와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고 말함.
-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반약과 건기식은 원료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보존을 가격 인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전문약은 고스란히 제조원가 상승을 떠안을 수밖에 없음. 시중에 유통 중인 한 천연물의약품 약가는 231원→168원→112원으로 순차적으로 인하되었고, 같은 종류의 개량신약도 출시 1년 6개월 만에 268원→205원으로 하락.
- B제약사 약가팀장은 "전문의약품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약가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번 약가가 결정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약가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원가구조 상승 요인을 근거로 약가를 올려주기 난무하다. 제조원가 상승은 전문약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 데일리팜 ('17.7.1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확대 지정 운영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신품종 개발 및 바이오산업 원천재료로 이용되는 산림생명자원 확보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고 밝힘.
- 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2010년부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관리기관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자원의 정보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
- 올해 신규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를 표고버섯분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협약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버섯연구센터는 앞으로 3년간 국내외 다양한 표고버섯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평가,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통해 육종소재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법률이 올해 8월경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고유 산림생명자원의 확보 및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자원을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육종가 및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소감을 밝힘.

※ 정책브리핑 ('17.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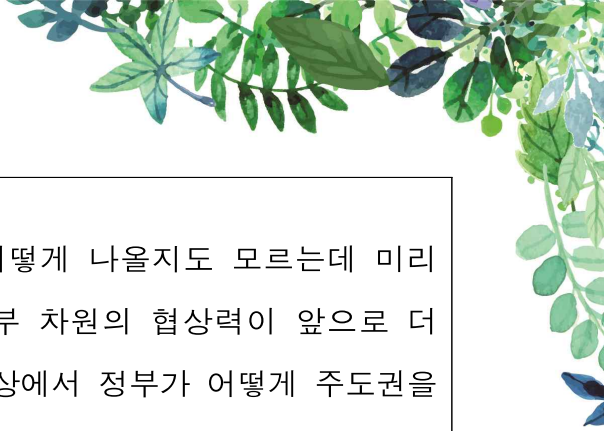


□ 내달 '나고야의정서' 발효 앞두고 업계 촉각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내달 17일 국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자원 주권화 및 국가 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은 의정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료비와 로열티는 물론, 정부에 최소 0.5%에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불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유전자원 부국인 인도, 남아프리카도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와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제품단가 25% 상승, 연구개발비용 31.8% 상승, 허가와 절차의 복잡성 9.1% 증가로 전망.
 - 업계 관계자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관련 사례도 없어서 현 상황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토로.
- ※ 메디컬투데이 (‘17.7.20)

□ 정부 해법 더딘 '나고야의정서'...화장품·제약업계 '불안불안'

-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화장품 업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의정서 규정이나 업계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음.
-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부터 나고야의정서 대응 팀인 CFT(Cross Functional Team)을 구성하고, 사용 중인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이익공유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국산 원료 개발에도 힘쓰고 있음. 무궁화 줄기인 목근피에서 추출한 보습 성분을 함유한 마몽드 '모이스처 세라마이드 인텐스 크림', 이른바 '무궁화 크림'을 선보인 바 있음.
- 동아에스티는 기획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대체 생물자원 개발 등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고, SK케미칼이나 녹십자 등 다른 회사들도 내부적으로 수입 원료 현황을 확인하고 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 계약 체결을 계획.
- 산업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부족한 수준임.
- 국내 업계는 향후 정부가 제공할 정보 서비스 기능으로 유전자원 정보 검색과 편리한 연계, 기본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
- 정부는 정보 공유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필요에 따라 지난 5월 '국가생약자원 정보 총괄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했지만, DB 구축은 의정서 발효 시점인 8월 중순부터 1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발 늦은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음.



- 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나중에 논의 테이블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대책을 마련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정부 차원의 협상력이 앞으로 더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 간 협상에서 정부가 어떻게 주도권을 차지할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

※ 데일리안 ('17.7.21)

□ '나고야의정서' 내달 발효...국립종자원, 업계 대상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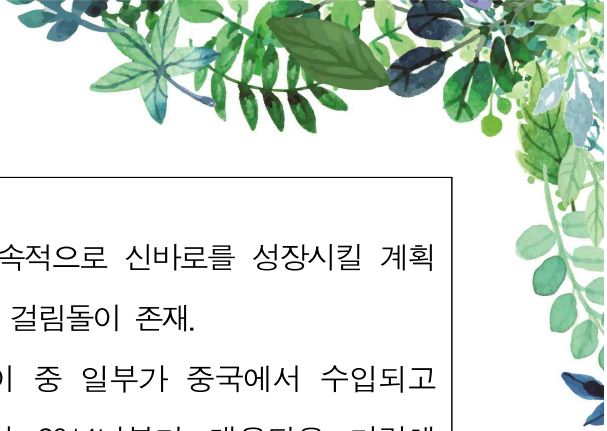
- 국립종자원은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내달 발효됨에 따라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종자 업계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종자 개발 등에 활용되는 생물유전자원의 약 70%를 중국, 인도, 남아공 등 해외에서 받을 정도로 해외의존도가 높음.
 -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이미 비준했고, 미국·호주 등도 비준을 마칠 경우 국내 종자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이행법률의 내용과 영향, 산림생명자원분야 및 종자 업계의 대응방안 등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될 계획.
- 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은 "해외 종자산업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토종 유전자원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함.

* 관련 공지: http://www.seed.go.kr/notice/news/notice_view.jsp?seq=1093&npage=1

※ 연합뉴스 ('17.7.23)

□ 녹십자 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지속 성장하는데...

- 23일 의약품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신바로는 올해 상반기 52억 64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성장했으며, 작년 연간 처방액이 105억4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연간 100억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녹십자는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입증해 지속적으로 신바로를 성장시킬 계획이지만, 8월17일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는 걸림돌이 존재.
- 신바로의 경우 6개의 생물자원을 수입해 사용하며, 이 중 일부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녹십자는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대응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 녹십자 관계자는 “아직 중국 등 원료수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오래 전부터 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온 만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Dailymedi (‘17.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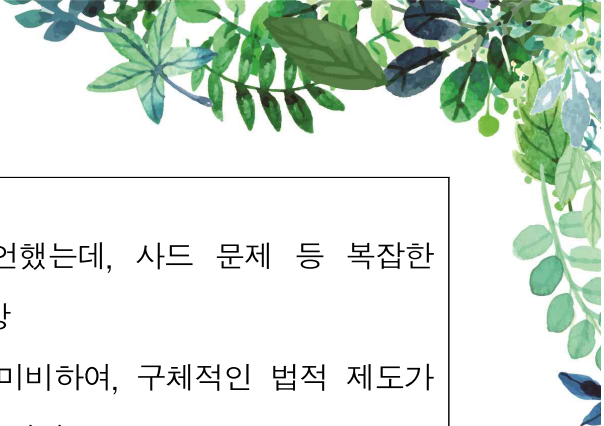
□ 경기도 바이오산업 애로해결...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도내 바이오 제약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해 기업 현장 방문을 실시.
- 현재까지 100여개 바이오제약 기업의 현장 방문이 진행됐으며, 기업인들에게 경기도의 지원시책 및 바이오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 특히 해외원료를 수입해 의약품 원료와 동물의약품, 화장품 원료 등을 제조하는 수원시 소재 A사는 이번 바이오센터 직원 방문을 통해 오는 8월에 발효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발효 이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 정영훈 바이오센터장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기업 방문과 애로해결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아시아투데이 (‘17.7.24)

□ 생물자원에 로열티 지불...‘나고야의정서’ 대책 시급

- 지난 2010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앞으로는 해당 국가 국내법에 따라 로열티를 줘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 의정서 이행에 들어가는 중국으로 인해 생물자원을 많이 수입해 쓰는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놓고 고심.



- 중국은 0.5~10% 사이에서 로열티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는데, 사드 문제 등 복잡한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최대 10%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
 -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작 국내 업계의 대응은 미비하여,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보도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비싼 로열티를 물게 될 경우, 그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가가 낮은 국가로 원료 수입처를 바꾸는 등 업계의 자구책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적.
- ※ YTN 사이언스 ('17.7.24)

□ 무협 "중국發 생물유전자원 보호 쇼크, 업체들 대응 서둘러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하면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시행을 예고.
 -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유전자원 보유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위반 시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며, 보고서는 중국이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원산지 중 4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힘.
 -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자사에서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여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상승폭을 파악하고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이외에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종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은 해당 법률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 ※ 뉴시스 ('17.7.27)



국외 동향

주요 동향 정보

【 신문기사 및 기타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당사국이 됨으로 국제발효 임박**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사무국)은 쿠바가 39번째 당사국이 되면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의 발효가 임박했다는 공문(COMMUNIQUÉ)을 발송.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는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과 보상(redress)에 대하여 관련된 적절한 국제 규칙과 절차(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5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P MP 5, '10.10)에서 채택된 후속의정서임.
 - 본 추가의정서의 제18조에는 “이 추가의정서는 의정서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라고 명시.
 - 크리스티나 파스카 파머 사무총장은 본 공문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비준은 이렇게 중요한 의정서의 발효를 촉진하게 되었고,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추가의정서를 비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본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못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에게 추가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함.
 - * 본 추가의정서 간략소개 : http://bch.cbd.int/protocol/NKL_ratification.shtml
 - ** 본 추가의정서 현황공지 : <http://bch.cbd.int/protocol/parties/#tab=1>
- ※ CBD사무국 공문 ('17.7.4)



ABS BRIEF 제63호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편집인 장영효 ABS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안민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이수효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편집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전화) 042-860-4626, 042-879-8332~4
(FAX) 042-879-8339
(홈페이지) www.abs.re.kr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S BRIEF (Volume 63)

August 1, 2017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Edited in ABS Research Support Center, KRIBB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el: +82-42-860-4626, +82-42-879-8332~4
FAX: +82-42-879-8339
Homepage: www.abs.re.kr

[비 매 품]

'ABS BRIEF -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기사 등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